

# 정답과 해설

1주	음운의 체계와 특성	04
2주	문장의 짜임과 양상	13
3주	통일 시대의 국어	22
	권말 정리 마무리 전략	28

# 정답과 해설

## 1주 > 음운의 체계와 특성

1일 개념 돌파 전략 1 8~11쪽

01 음운 02 자음 03 ㉠ 04 (1) 단모음 (2) 이중 모음  
05 ㉡ 06 ㉢ 07 ㉣ 08 (1) ㅏ (2) ㅓ 09 ㉤ 10 ㉥  
11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12 입안이나 코안의 울림 여  
부 13 (1) 잇몸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2) 센입천장소리, 파찰  
음, 거센소리 14 ㉦

- 01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 02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는 자음이다.
- 03 같은 자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도 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뜻이 구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리의 길이도 음운에 해당한다.
- 04 (1)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2)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을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
- 05 ‘ㄱ’, ‘ㄴ’, ‘ㄷ’, ‘ㄹ’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고, ‘ㄴ’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 모음이다.
- 06 ‘ㅣ’, ‘ㅑ’, ‘ㅓ’, ‘ㅕ’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고, ‘ㅗ’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 07 ‘ㅜ’, ‘ㅠ’는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 ‘ㅛ’, ‘ㅠ’는 혀의 높이가 중간 정도인 중모음, ‘ㅓ’는 혀의 높이가 낮은 저모음이다.
- 08 (1) 후설 모음이면서 고모음, 원순 모음인 것은 ‘ㅜ’이다.  
(2) 전설 모음이면서 저모음, 평순 모음인 것은 ‘ㅓ’이다.
- 09 ㉤ ‘ㄴ’은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 ‘잇몸소리’이다.
- 10 ‘ㅊ’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막았던 자리를 조금 열고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인 파찰음이다.

- 11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예사소리,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된소리,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거센소리로 분류할 수 있다.
- 12 발음할 때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는 비음, 유음을 울림소리라고 하고, 입안이나 코안이 울리지 않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안울림소리라고 한다.
- 13 (1) ‘ㄷ’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잇몸소리,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로 분류할 수 있다.  
(2) ‘ㅊ’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센입천장소리,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찰음, 소리의 세기에 따라 거센소리로 분류할 수 있다.
- 14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 체계를 이루지만, 마찰음은 예사소리와 된소리만으로 나뉜다. ㉥의 ‘ㅆ’, ‘ㅈ’은 마찰음으로, 이에 대응하는 거센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1일 개념 돌파 전략 2 12~13쪽

01 ㉡ 02 ㉢ 03 ㉠ 04 승주 05 ㉣ 06 (1) 빠삭 (2) 단  
단하다 (3) 뽀뽀하다

- 01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오답 풀이** ㉠은 형태소, ㉢은 음절, ㉣은 단어, ㉤은 어절에 대한 설명이다.
- 02 ‘ㄱ’, ‘ㄴ’, ‘ㄷ’, ‘ㄹ’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발음하는 원순 모음이고, ㉠ ‘ㅏ’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 모음이다.
- 03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입이 아닌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04 '밤[夜]'은 '해가 저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의 동안'을 뜻하는 말로, 짧게 발음한다. '밤[栗]'은 '밤나무의 열매를 뜻하는 말'로, 길게 발음한다.

**오답 풀이** • 재정: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을 의미하는 '눈[眼]'은 짧게 발음하고,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의미하는 '눈[雪]'은 길게 발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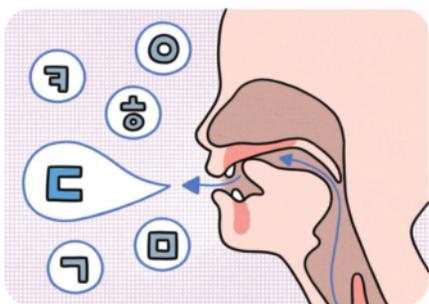
• 소정: '자연적으로 땅이나 바위가 안으로 깊숙이 패어 들어간 곳'을 의미하는 '굴[窟]'은 길게 발음하고, '굴과 의 연체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굴'은 짧게 발음한다.

• 해준: '주로 액체나 가루를 담은 데에 쓰는 목과 아가리가 좁은 그릇'을 의미하는 '병[甁]'은 짧게 발음하고, '생물체의 전신이나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병[病]'은 길게 발음한다.

• 연선: '아버지와 아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부자(父子)'의 '부'는 짧게 발음하고,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의미하는 '부자(富者)'의 '부'는 길게 발음한다.

05 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며 거센소리인 자음은 'ㄱ',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으며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고 혀의 높이는 중간에 위치하는 모음은 'ㅛ', 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며 비음인 자음은 'ㅇ'이다.

06 'ㅂ'에 대응하는 된소리는 'ㅃ'이므로 (1)에는 '빠삭'이 들어갈아야 한다. 'ㅌ'에 대응하는 예사소리와 된소리는 각각 'ㄷ', 'ㄸ'이므로 (2)에는 '단단하다'가, (3)에는 '뚝뚝하다'가 들어갈아야 한다.



2일 필수 체크 전략 1

14~15쪽

1 ② 1-1 ④ 1-2 소리의 길이 2 ⑤ 2-1 ② 2-2 ㄱ, ㅡ, ㅏ, ㅣ, ㅑ 3 ③ 3-1 ① 3-2 ⑤ 4 ① 4-1 ② 4-2 ③

1 우리말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에는 모음과 자음, 소리의 길이 등이 있다.

1-1 우리말에서 'ㅇ'은 종성에서만 소리 나고 초성에서는 소릿값이 없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를 셀 때 초성의 'ㅇ'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 '오징어'는 'ㅇ+ㅈ+ㅇ+ㅣ+ㅇ+ㅇ'의 5개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단어들은 모두 6개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고구마'는 'ㄱ+ㅇ+ㅇ+ㄱ+ㅇ+ㅁ+ㅏ'의 6개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고등어'는 'ㄱ+ㅇ+ㄷ+ㅡ+ㅇ+ㅇ'의 6개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미나리'는 'ㅁ+ㅣ+ㄴ+ㅣ+ㄹ+ㅣ'의 6개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⑤ '애호박'은 '애+호+ㅏ+ㅂ+ㅑ+ㅑ'의 6개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말과의 포유류'를 의미하는 '말[馬]'은 짧게 발음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인 '말[語]'은 길게 발음하여 두 단어는 소리의 길이로 뜻을 구별할 수 있다.

2 모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고,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그러므로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모음과 자음을 구분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음운을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② 형태소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④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2-1 '수증기가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의미하는 ②의 '눈[雪]'은 길게 발음한다. 나머지는 모두 짧게 발음하는 단어들이다.

2-2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는 모음이다. '돌을 던지자.'라는 문장에는 모음 'ㅛ, ㅡ, ㅏ, ㅣ, ㅑ'가 사용되었다.

3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

은 단모음이다. 그러므로 ㉠에는 우리말의 단모음인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들어갈 수 있다.

3-1 ① ‘물오리’의 발음은 [무로리]로, 여기에 사용된 모음 ‘ㅜ, ㅓ, ㅣ’는 모두 단모음이다.

**오답 풀이** ②의 ‘요’, ‘과’, ③의 ‘ㅠ’, ④의 ‘뒤’, ⑤의 ‘켜’는 이중 모음이다.

3-2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으로, ⑤ ‘야’의 ‘ㅑ’는 이중 모음이다. ‘배’의 ‘ㅐ’, ‘뽕’의 ‘ㅇ’, ‘베’의 ‘ㅔ’, ‘뜰’의 ‘ㄷ’는 모두 단모음이다.

4 <보기>는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원순 모음(ㅜ, ㅠ, ㅓ, ㅛ)과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 모음(ㅣ, ㅑ, ㅕ, ㅡ, ㅓ, ㅗ)으로 분류한 것이다.

4-1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에는 ‘ㅣ, ㅜ, ㅡ, ㅠ’, 혀의 높이가 중간 정도인 중모음에는 ‘ㅑ, ㅓ, ㅓ, ㅛ’, 혀의 높이가 낮은 저모음에는 ‘ㅐ, ㅗ’가 있다. 그러므로 제시된 자음 중에서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은 고모음인 ‘ㅜ’이다.

4-2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과 같이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에는 ‘ㅣ, ㅑ, ㅕ, ㅛ, ㅓ’가 있다. ③ ‘그늘’에 사용된 모음 ‘ㄷ’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2일 필수 체크 전략 2

16~19쪽

01 ③ 02 ⑤ 03 ④ 04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이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05 ② 06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고,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07 ① 08 ③ 09 ③ 10 ④ 11 ㉠ 단모음 ㉡ 이중 모음 12 ⑤ 13 ① 14 ⑤ 15 (1) ㅏ, ㅡ, ㅓ (2) ㅣ, ㅡ (3) ㅜ, ㅣ, ㅡ 16 (가)~(다)를 나누는 기준: 발음할 때 혀의 높낮이 / (가) 고모음 (나) 중모음 (다) 저모음 17 ③ 18 ①

01 ‘바나나’를 구성하는 음운은 ‘ㅂ+ㅏ+ㄴ+ㅏ+ㄴ+ㅏ’로 6개이고, ‘오렌지’를 구성하는 음운은 ‘ㅇ+ㄹ+ㅐ+ㄴ+ㅓ+ㅣ’로 6개이므로 두 단어를 이루고 있는 음운의 개수는 같다.

02 ①은 ‘ㅜ, ㅓ, ㅣ’로 3개, ②는 ‘ㅓ, ㅏ, ㅓ, ㅓ, ㅓ’로 5개, ③은 ‘ㅓ, ㅓ, ㅓ, ㅓ’로 4개, ④는 ‘ㅓ, ㅣ, ㅓ, ㅓ, ㅓ’로 5개, ⑤는 ‘ㄷ, ㅏ, ㅓ, ㅓ, ㅓ, ㅓ’로 6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가장 많은 음운이 사용된 것은 ⑤ ‘당근’이다.

03 ④ ‘다리’와 ‘도리’는 모음 ‘ㅏ’와 ‘ㅓ’ 때문에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

**오답 풀이** ①은 자음 ‘ㅂ’과 ‘ㅑ’, ②는 자음 ‘ㄹ’과 ‘ㅂ’, ③은 자음 ‘ㄱ’과 ‘ㅓ’, ⑤는 자음 ‘ㅇ’과 ‘ㄱ’에 의해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

04 <보기>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발음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세’와 ‘채’는 모음으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인데, 모음 ‘ㅐ’와 ‘ㅑ’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다른 뜻으로 전달될 수 있다.

05 (가)의 ‘종’과 ‘공’은 자음 ‘ㅈ’, ‘ㄱ’ 때문에 뜻이 구별되고, (나)의 ‘밤[밤]’과 ‘밤[밤:]’은 소리의 길이 때문에 뜻이 구별된다.

06 모음과 자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지, 받지 않는지에 차이가 있다.

07 ①에 사용된 ‘ㅐ’와 ‘ㅓ’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다.

**오답 풀이** ②의 ‘ㅑ’, ③의 ‘요’, ④의 ‘켜’, ⑤의 ‘요’와 ‘ㅠ’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이다.

08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는 자음이고(㉡), 단모음을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누는 기준은 소리의 세기가 아니라 발음할 때의 혀의 높낮이이다(㉢).

09 ‘말과의 포유류’를 나타내는 ‘말’은 짧게 발음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를 의미하는 ‘말’은 길게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의미하는 ‘눈’은 길게

발음한다.

② '생물체의 전신이나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병'은 길게 발음한다.

④ '짐승들이 만들어 놓은 구멍'을 의미하는 '굴'은 길게 발음한다.

⑤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물건'을 의미하는 '발'은 길게 발음한다.

10 ④ '귀'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다.

**오답 풀이** ① 'ㅑ', ② 'ㅐ', ③ 'ㅓ', ⑤ 'ㅕ'는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이다.

**자료실**

**'ㅓ'와 'ㅕ'의 발음**

**표준 발음법 제4항**

'ㅓ, ㅕ, ㅑ, ㅐ, ㅓ, ㅕ, ㅗ, ㅛ, ㅜ, ㅠ'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ㅓ, ㅕ'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ㅓ'와 'ㅕ'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때가 많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예 금괴 [금괴 / 금궤]

참외 [차외 / 차궤]

11 ㉠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고, ㉡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이중 모음이다.

12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에는 'ㅣ, ㅑ, ㅕ, ㅓ, ㅗ'가 있다. ⑤ 'ㅡ'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13 ㉠처럼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것은 전설 모음(ㅣ, ㅑ, ㅕ, ㅓ, ㅗ), ㉡처럼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것은 후설 모음(ㅡ, ㅛ, ㅜ, ㅠ, ㅠ)이다.

14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원순 모음에는 'ㅓ, ㅕ, ㅗ, ㅛ'가 있다. ⑤ '하늘'에 사용된 모음 'ㅏ'와 'ㅜ'는 모두 평순 모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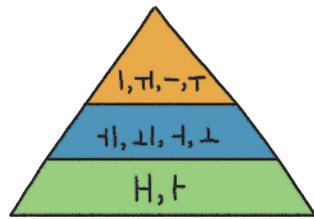
15 후설 모음에는 'ㅡ, ㅛ, ㅜ, ㅠ, ㅠ', 평순 모음에는 'ㅣ, ㅑ,

ㅕ, ㅡ, ㅛ, ㅜ', 고모음에는 'ㅣ, ㅓ, ㅗ, ㅛ'가 있다. 1행에 사용된 모음은 'ㅏ, ㅣ, ㅡ, ㅓ'이고, 이 중 후설 모음인 것은 'ㅏ, ㅡ, ㅓ'이다. 2행에 사용된 모음은 'ㅓ, ㅣ, ㅡ'이고, 이 중 평순 모음인 것은 'ㅣ, ㅡ'이다. 3행에 사용된 모음은 'ㅏ, ㅗ, ㅣ, ㅡ, ㅓ, ㅛ, ㅜ'이고, 이 중 단모음이면서 고모음인 것은 'ㅓ, ㅣ, ㅡ'이다.

16 'ㅣ, ㅓ'는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 'ㅓ, ㅓ'는 혀의 높이가 중간 정도인 중모음, 'ㅑ'는 혀의 높이가 낮은 저모음이므로, (가)~(다)를 나눈 기준은 발음할 때 혀의 높낮이이다.

17 ㉠에는 고모음이면서 전설 모음, 원순 모음인 'ㅓ', ㉡에는 고모음이면서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인 'ㅡ', ㉢에는 중모음이면서 후설 모음, 원순 모음인 'ㅓ', ㉣에는 저모음이면서 후설 모음, 평순 모음인 'ㅏ'가 들어가야 한다.

18 '계'의 정확한 발음은 [계:]인데 딸이 모음 'ㅑ'를 [ㅑ]로 잘못 발음하여 아버지가 '계'를 '개[개:]'로 오해했다.



3일 필수 체크 전략 1

20~21쪽

1 ⑤ 1-1 ⑤ 1-2 ③ 2 ③ 2-1 ① 2-2 사, 썸 3 ⑤  
3-1 ③ 3-2 기, 띠, 뽀, 썸, 썸 4 ② 4-1 툇, 썸

- 1 ①은 입술로,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입술소리라고 한다. ②은 목청으로,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목청소리라고 한다. 입술소리에는 ‘ㅂ, ㅃ, ㅍ, ㅍ’이 있고, 목청소리에는 ‘ㅎ’이 있다.
- 1-1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고 ‘ㅎ’은 목청소리, 두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오답 풀이** ① ‘ㄱ’과 ‘ㅋ’은 여린입천장소리, ② ‘ㄴ’과 ‘ㄷ’, ③ ‘ㄷ’과 ‘ㄹ’은 잇몸소리, ④ ‘ㄹ’과 ‘ㅃ’은 입술소리이다.
- 1-2 잇몸소리에는 ‘ㄷ, ㅌ, ㅊ, ㅊ, ㄴ, ㄹ’이 있다. ①, ④, ⑤에는 ‘ㄹ’, ②에는 ‘ㄴ’과 ‘ㄹ’이 사용되었고, ③ ‘주황’에는 잇몸소리가 사용되지 않았다.
- 2 <보기>는 과열음에 대한 설명으로, 과열음에는 ‘ㄱ, ㅋ, ㅋ, ㅌ, ㅌ, ㅊ, ㅊ’이 있다. ③ ‘ㄹ’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소리 내는 유음이다.
- 2-1 제시된 자음은 모두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비음이다.
- 2-2 마찰음에는 ‘ㅅ, ㅆ, ㅎ’이 있으며, 이 중에서 <보기>에는 ‘ㅅ’과 ‘ㅆ’이 사용되었다.
- 3 자음을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할 때,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거센소리에는 ‘ㅋ, ㅌ, ㅊ, ㅊ’이 있다. ⑤에는 거센소리인 ‘ㅊ’이 사용되었다.
- 3-1 ㉠ ‘ㄷ’은 예사소리, ㉡ ‘ㅌ’은 된소리, ㉢ ‘ㅊ’은 거센소리이다. 발음할 때 숨이 거세게 나오는 소리는 거센소리이므로 ㉠과 ㉡을 발음할 때 숨이 거세게 나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3-2 숨이 거세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대 근육을 긴장시켜 내는 소리로,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것은 된소리(기, 띠, 뽀, 썸, 썸)이다.
- 4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 ‘뿔’, ‘풀’을 서로 다른 말로 알아듣는 것과 달리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말과 영어의 음운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각 언어마다 음운 체계는 서로 다르다.

- ③ 영어의 음운 체계에서는 [b]와 [p]의 구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불’과 ‘뿔’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  
④ 우리말에서는 [ㅂ], [ㅃ], [ㅍ]의 소리를 구별하기 때문에 ‘불’과 ‘풀’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  
⑤ 우리말에서는 ‘불’, ‘뿔’, ‘풀’의 소리를 구별하지만 영어에서는 구별하지 못한다.

4-1 찰리가 [ㄷ]과 [ㅌ]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여 ‘짜다’를 ‘차다’라고 말했다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01 ① 02 ① 03 ⑤ 04 ·㉔: 입술소리 ·㉕와 ㉖ 사이: 여린입천장소리 05 ④ 06 (1) 입안의 어떤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2) 유음 07 ③ 08 ⑤ 09 ② 10 ㉔ 입술소리 ㉕ 목청소리 ㉖ 파찰음 ㉗ 유음 11 ② 12 ④ 13 ② 14 ③ 15 자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자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 체계를 이룬다.) 16 ③ 17 ④

- 01 모음은 혼자 소리 낼 수 있지만 자음은 모음과 결합해야 소리를 낼 수 있다.
- 02 <보기>에서는 ‘밭’에 사용된 음운 중 한 개만 바꾸어도 의미가 다른 단어가 됨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박’은 자음 ‘ㄱ’을 ‘ㄱ’으로, ③ ‘밭’은 모음 ‘ㅏ’를 ‘ㅓ’로, ④ ‘밭’과 ⑤ ‘밭’은 자음 ‘ㅂ’을 각각 ‘ㅅ’과 ‘ㅇ’으로 바꾼 것이다. ① ‘금’은 세 개의 음운을 모두 바꾼 것이다.
- 03 <보기>의 ‘ㅅ, ㅆ, ㅎ’은 마찰음으로,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이다.  
**오답 풀이** ①은 여린입천장소리, ②는 비음, ④는 파열음에 대한 설명이고, ③은 된소리에 대한 설명이다.
- 04 ㉔는 입술로,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입술소리라고 한다. ㉕는 혀 뒷부분이고 ㉖는 여린입천장으로, 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여린입천장소리라고 한다.
- 05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는 잇몸소리(㉕, ㉖, ㉗, ㉘, ㉙, ㉚)이고,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비음(㉛, ㉜, ㉝)이다. 잇몸소리이면서 비음인 자음은 ‘㉛’으로, ㉜ ‘은’에 ‘㉛’이 사용되었다.
- 06 (1) 파열음은 입안의 어떤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2)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는 유음이다.
- 07 ③ ‘ㅆ’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막았던 자리를 조금 열고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인 파찰음이고, 나머지는 입안의 어떤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 파열음이다.

- 08 유음에는 ‘ㄹ’이 있고, 비음에는 ‘ㄴ, ㅁ, ㅇ’이 있다. ① ‘눈’에는 비음 ‘ㄴ’이, ② ‘월’에는 유음 ‘ㄹ’이, ③ ‘물’에는 비음 ‘ㅁ’과 유음 ‘ㄹ’이 사용되었고, ④ ‘린’에는 유음 ‘ㄹ’과 비음 ‘ㄴ’이 사용되었다. ⑤ ‘씩’에는 유음이나 비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 09 <보기>는 된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ㄱ, ㄷ, ㅃ, ㅆ, ㅉ’이 된소리에 해당한다. ①의 ‘ㄱ’, ③의 ‘ㅆ’, ④의 ‘ㄷ’, ⑤의 ‘ㅃ’은 된소리이고, ②에는 된소리가 사용되지 않았다.
- 10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셴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나눌 수 있고,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눌 수 있다.
- 11 (가)에는 잇몸소리이면서 파열음인 ‘ㄷ, ㄸ, ㅌ’이, (나)에는 여린입천장소리이면서 파열음인 ‘ㄱ, ㄲ, ㅋ’이, (다)에는 잇몸소리이면서 마찰음인 ‘ㅅ, ㅆ’이, (라)에는 여린입천장소리이면서 비음인 ‘ㅇ’이 들어가야 한다.
- 12 ㉑은 파열음, ㉒은 마찰음, ㉓은 파찰음에 대한 설명이다. 파열음에는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ㅆ’이 있고, 마찰음에는 ‘ㅅ, ㅆ, ㅎ’이 있고, 파찰음에는 ‘ㅈ, ㅉ, ㅊ’이 있다. ㉔의 ‘ㅂ’, ‘ㅋ’, ‘ㄷ’은 모두 파열음이다.
- 13 제시된 문장은 [산꼴짜게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점: 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로 읽는다. 마찰음에는 ‘ㅅ, ㅆ, ㅎ’이 있는데, 제시된 문장에는 ‘ㅅ’만 사용되었다. ‘ㅆ’은 마찰음이 아닌 파열음이다.
- 14 ‘경’에 사용된 자음 ‘ㄱ’과 ‘ㅇ’은 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는 여린입천장소리이므로, ‘경’에 사용된 자음은 모두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난다.  
**오답 풀이** ① ‘세상[세:상]에 사용된 ‘ㅅ’은 마찰음, ‘ㅇ’은 비음이다. ② ‘아름답게[아름답게]에 사용된 잇몸소리는 ‘ㄹ’과 ‘ㄷ’이다. ④ ‘착한[차칸]’에는 거센소리 ‘ㄷ’과 ‘ㅋ’만 사용되었다. ⑤ ‘뒹시다[뒹씨다]에 사용된 자음 중 파열음에 해당하는 것은 ‘ㄷ’과 ‘ㅂ’이다.
- 15 외국인 학생은 ‘싸다’와 ‘사다’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인 학생은 구별하고 있다. 이는 우리말 자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삼중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16 <보기>는 우리말 자음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되어 삼중 체계를 이루는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㉓은 모음의 변화에 따라 소리의 느낌이 달라지는 예이므로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없다.
- 17 ‘ㅂ’, ‘ㅃ’, ‘ㅍ’은 모두 입안의 어떤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 파열음이므로, 세 자음을 소리 내는 방법은 같다.



누구나 합격 전략

26~29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③ 05 ④ 06 (1) ㄷ, ㅌ (2) ㄹ (3) ㄴ 07 (1) 전설 모음 (2) 후설 모음 (3)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 08 ② 09 목청소리 10 ② 11 ② 12 ② 13 ④ 14 (1) 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난다. (2) ‘ㄱ, ㅋ, ㆁ’은 파열음이고, ‘ㅇ’은 ‘비음’이다. 15 ⑤ 16 ④ 17 ④

- 01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 모음과 자음, 소리의 길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눈:]’과 사람의 신체 기관인 ‘눈[눈]’은 소리의 길이로 그 뜻을 구별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학생’은 ‘ㅎ+ㅅ+ㅅ+ㅅ+ㅅ+ㅅ+ㅇ’, ‘어머니’는 ‘ㅇ+ㅁ+ㅇ+ㄴ+ㅇ’로 5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에 따른 분류이다.
- 02 ‘ㅏ’는 혀의 높이가 낮은 저모음, ‘ㅓ’는 혀의 높이가 중간 정도인 중모음, ‘ㅗ’는 혀의 높이가 높은 고모음이다. 따라서 ‘ㅏ’ → ‘ㅓ’ → ‘ㅗ’의 순서로 발음하면 혀의 높이가 점점 높아진다.
- 03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의 ‘ㅓ’는 고모음, ㉡의 ‘ㅏ’, ㉢의 ‘ㅓ’는 중모음, ㉣의 ‘ㅏ’는 저모음이다.
- 04 (가)는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ㄱ, ㅋ, ㆁ, ㄷ, ㅌ)이고, (나)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ㄴ, ㄹ, ㄷ, ㅌ, ㄴ)이다. ㉢의 ‘ㅏ’는 후설 모음, ‘ㅓ’는 전설 모음이다.
- 05 단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원순 모음과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의 ‘ㅓ’는 평순 모음이고, 나머지 ‘ㄷ’, ‘ㅌ’, ‘ㄴ’, ‘ㄹ’은 원순 모음이다.
- 06 (1)은 이중 모음, (2)는 전설 모음이자 고모음, (3)은 원순 모음이자 중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된 시에 사용된 모음은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 ㅓ’이며, 이중 모음인 것은 ‘ㅓ’, ‘ㅓ’, 전설 모음이면서 고모음인 것은 ‘ㅓ’,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인 것은 ‘ㅓ’이다.

- 07 '개'와 '귀'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이고, '나', '나', '누'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이다.
- 08 ㉠에는 '이', ㉡에는 '우', ㉢에는 '기', ㉣에는 '고', ㉤에는 '개'가 들어가야 한다. ㉡ '구름'의 '름'에 사용된 모음도 '우'이므로 ㉡에 들어갈 모음 '우'와 일치한다.  
**오답 풀이** ① '넷가'의 '넷'에 사용된 모음은 '개'이므로 ㉠에 들어갈 모음 '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③ '소문'의 '소'에 사용된 모음은 '고'이므로 ㉢에 들어갈 모음 '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④ '개나리'의 '리'에 사용된 모음은 '이'이므로 ㉣에 들어갈 모음 '고'와 일치하지 않는다.  
 ⑤ '외삼촌'의 '외'에 사용된 모음은 '기'이므로 ㉤에 들어갈 모음 '개'와 일치하지 않는다.
- 09 '센입천장'에 사용된 자음은 '스, 니, 비, 츠, 즈, 오'이다. 이중 '스', '니'는 잇몸소리이고, '비'는 입술소리, '츠', '즈'는 센입천장소리, '오'는 여린입천장소리이다. 그러므로 제시된 단어에는 목청소리가 사용되지 않았다.
- 10 <보기>는 자음을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로 분류한 것이다.
- 11 '초성'은 된소리(ㄱ, ㅋ, ㆁ, ㆅ, ㆆ)에 대한 설명이고, '중성'은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인 모음(ㅜ, ㅡ)에 대한 설명이고, '종성'은 유음(ㄹ)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는 ㉡ '꼴'이다.
- 12 '강물이[강무리]'에 사용된 모음은 'ㅏ', 'ㅑ', 'ㅣ'로, 'ㅏ', 'ㅑ'는 후설 모음이지만 'ㅣ'는 전설 모음이므로 모두 후설 모음이라는 ㉡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3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다. ㉣의 'ㅃ'과 'ㅆ'은 모두 된소리이다.  
**오답 풀이** ①은 예사소리와 된소리, ②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③은 된소리와 거센소리, ⑤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가 묶여 있다.
- 14 제시된 자음들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분류했을 때 여린입천장소리이다.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ㄱ, ㄴ, ㅋ'은 파열음이고, 'ㅇ'은 비음에 해당한다.
- 15 ㉠에 사용된 'ㄱ', 'ㄷ', 'ㅈ'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예사

소리, ㉡에 사용된 'ㄴ', 'ㄷ', 'ㅆ'은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된소리, ㉢에 사용된 'ㅋ', 'ㅌ', 'ㅊ'은 크고 거친 느낌을 주는 거센소리이다.

- 16 <보기>의 '눈'은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를 의미하므로 길게 발음한다.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맨 끝부분'을 의미하는 ㉣ '발'은 짧게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를 의미하는 '말'은 길게 발음한다.

- ② '별목의 곤충 가운데 개미류를 제외한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의미하는 '벌'은 길게 발음한다.  
 ③ '밤나무의 열매'를 의미하는 '밤'은 길게 발음한다.  
 ⑤ '생물체의 전신이나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병'은 길게 발음한다.

**자료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모음을 어감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도 있다. 어감이 밝고 산뜻한 모음을 '양성 모음',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을 '음성 모음'이라고 한다.

- 양성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 음성 모음: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ㅝ, 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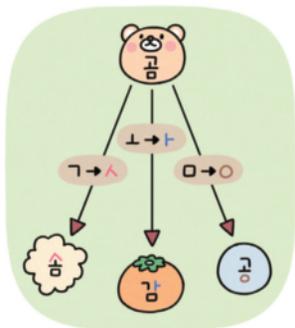
- 17 '깜깜했다'와 '깜깜했다'의 느낌을 차이나게 하는 음운은 거센소리 'ㅋ'과 된소리 'ㄱ'이다. 따라서 '깜깜했다'를 '깜깜했다'로 바꾸면 강하고 단단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은 예사소리이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1

30~31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③ 05 입이 점차 벌어지면서 혀의 높이가 낮아진다.(혀는 점점 낮아지고 입은 점점 벌어진다.)  
06 외국인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구별하지 않고 ‘ㄷ’, ‘ㅌ’, ‘ㅍ’을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외국인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인 ‘ㄷ’, ‘ㅌ’, ‘ㅍ’을 서로 다른 소리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 01 (가)에서 말과의 포유류를 의미하는 ‘말’은 짧게 발음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를 의미하는 ‘말’은 길게 발음하여 소리의 길이로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 (나)에서 ‘불’과 ‘뵈’는 모음 ‘ㅜ’와 ‘ㅠ’의 차이로 단어의 뜻이 구별된다.
- 02 ㉠에는 원순 모음이자 고모음인 ‘ㄱ’나 ‘ㅠ’가 들어가야 한다. ㉡에는 이중 모음, ㉢에는 평순 모음, ㉣에는 원순 모음인면서 중모음인 모음이 들어가야 한다.
- 03 <보기>의 ‘ㄱ’, ‘ㄷ’, ‘ㅂ’은 모두 파열음으로 소리 내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ㄱ’은 여린입천장소리, ‘ㄷ’은 잇몸소리, ‘ㅂ’은 입술소리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04 ‘ㄷ, ㅌ, ㅍ’은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소리 나는 센입천장소리이다.
- 05 ‘ㅡ’는 고모음, ‘ㅣ’는 중모음, ‘ㅏ’는 저모음이므로 ‘ㅡ, ㅣ, ㅏ’를 차례대로 발음해 보면 입이 벌어질수록 혀의 높이는 점점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06 대화 상황에서 외국인은 예사소리인 ‘ㄷ’, 된소리인 ‘ㅌ’, 거센소리인 ‘ㅍ’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소리([ㅌ])로 인식하여, ‘달’, ‘딸’, ‘탈’을 모두 [탈]로 발음하고 있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2

32~33쪽

07 (1) 모음이나 자음을 바꾸면 (2) 소리의 길이가 다르면  
08 (1) ㅏ+ㅑ+ㅎ+ㅌ+ㄱ (2) ㅡ+ㅗ+ㅌ+ㄱ 09 ⑤  
10 ② 11 ④

- 07 탐구 과정에서 초성, 중성, 종성 중 한 개만 다른 자모음으로 바꾸어도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것과, 소리의 길이가 다르면 단어의 뜻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여 우리말 음운에는 모음, 자음, 소리의 길이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08 (1) ‘수학’은 ‘ㅏ, ㅑ, ㅎ, ㅌ, ㄱ’ 총 5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음악’은 ‘ㅡ, ㅗ, ㅌ, ㄱ’ 총 4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성의 ‘ㅇ’은 소릿값을 가지지 않는다.
- 09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보기>와 같은 것은 후설 모음이다. 후설 모음에는 ‘ㅡ, ㅣ, ㅗ, ㅑ, ㅛ’가 있으며, ‘나무늘보’에 사용된 모음 ‘ㅏ, ㅑ, ㅡ, ㅛ’는 모두 후설 모음이다.  
**오답 풀이** ① ‘소개’에 사용된 모음은 ‘ㅛ’와 ‘개’로, ‘ㅛ’는 후설 모음, ‘개’는 전설 모음이다.  
② ‘이사’에 사용된 모음은 ‘ㅣ’와 ‘ㅏ’로, ‘ㅣ’는 전설 모음, ‘ㅏ’는 후설 모음이다.  
③ ‘참외’에 사용된 모음은 ‘ㅏ’와 ‘ㅛ’로, ‘ㅏ’는 후설 모음, ‘ㅛ’는 전설 모음이다.  
④ ‘언제나’에 사용된 모음은 ‘ㅣ’, ‘개’, ‘ㅏ’로, ‘ㅣ’와 ‘ㅏ’는 후설 모음, ‘개’는 전설 모음이다.
- 10 발음을 기준으로, 제시된 노랫말에 사용된 자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ㅗ, ㅛ, ㅜ, ㅠ, ㅛ, ㅜ, ㅠ, ㅇ’이다. 이 중 파열음에 해당하는 것은 ‘ㅓ, ㅕ, ㅛ, ㅜ, ㅠ’, 비음에 해당하는 것은 ‘ㄴ, ㅁ, ㅇ’, 된소리에 해당하는 것은 ‘ㅓ, ㅕ’이다.
- 11 ‘ㄴ’은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인 비음이고, ‘ㅎ’은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인 ‘마찰음’이다.  
**오답 풀이** ① 파열음, 마찰음에 대한 설명이다.  
② 파열음, 파찰음에 대한 설명이다.  
③ 마찰음, 비음에 대한 설명이다.  
⑤ 유음, 파열음에 대한 설명이다.

## 2주 문장의 짜임과 양상

### 1일 개념 돌파 전략 1

36~39쪽

01 주성분 02 주어: 바람이, 서술어: 분다 03㉠ 04(1) 관형어(2) 부사어 05㉠ 06(1) 흠(2) 겹 07 안은문장, 안긴문장 08 대등 09 종속 10(1) 동생이 오기(2) 지수가 그 일을 해냈음 11 관형어 역할 12 부사어 역할 13㉠ 14(1) 흠문장(2) 겹문장 15 호응, 의미

- 01 문장 성분 가운데 문장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은 주성분이다.
- 02 ‘바람이’는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주어이고, ‘분다’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서술어이다.
- 03 ㉠의 ‘정말’은 용언 ‘예쁘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다.
- 04 (1) ‘새’는 체언 ‘가방’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2) ‘무척’은 용언 ‘느리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 05 독립 성분은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 06 (1) ‘국화가(주어) + 피었다(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흠문장이다.  
(2) ‘나는(주어) + 쓰고(서술어)’, ‘동생은(주어) + 불렀다(서술어)’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 07 흠문장이 다른 흠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하고, 안은문장 속에 절의 형태로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한다.
- 08 앞뒤 절이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지는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 09 앞뒤 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고 원인, 조건, 목적이나 의도, 양보, 배경 등의 의미 관계로 이어지는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 10 (1) ‘동생이 오기’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다.  
(2) ‘지수가 그 일을 해냈음’이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다.

- 11 ‘진호가 이기는’은 체언인 ‘장면’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12 ‘소리도 없이’가 용언 ‘내린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13 ㉠에서 안긴문장 ‘마음씨가 곱다’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은 부사절, ㉠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14 (1) 흠문장은 표현이 간결하고 명료하며, 속도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2) 겹문장은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이고 집약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사건의 연결 관계와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 15 의미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려면 필요한 문장 성분을 잘 갖추고 있는지, 문장 성분의 호응이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한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 1일 개념 돌파 전략 2

40~41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① 05 ③ 06 ③

- 01 문장의 주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이다. ④의 ‘빠르게’는 용언 ‘지나갔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므로, 주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나는’은 주어이므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② ‘키가 크다’는 서술어이므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③ ‘꽃다발을’은 목적어이므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⑤ ‘얼음이’는 보어이므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 02 ⑤는 ‘파도가 친다.’와 ‘갈매기가 난다.’라는 두 흠문장이 나란히 이어져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러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파도가(주어) + 치고(서술어)’, ‘갈매기가(주어) + 난다(서술어)’로 두 번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등산객이(주어) + 땀(서술어)

- ② 사람이(주어) + 잡았다(서술어)
- ③ 아이가(주어) + 들었다(서술어)
- ④ 사람들이(주어) + 모였다(서술어)

03 <보기>는 명사절 ‘그가 떠났음’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안은문장이다. ⑤는 두 홑문장 ‘꽃이 활짝 피었다.’와 ‘나비가 날아들었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부사절(‘땀이 나게’)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② 부사절(‘소리도 없이’)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③ 명사절(‘해가 뜨기’)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 ④ 관형절(‘강아지가 우는’)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4 <보기>는 ‘민희는 집에 있다.’와 ‘상이는 학교에 갔다.’라는 두 홑문장이 대등한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므로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05 제시된 문장에서 ‘요즘 내가 읽고 있는’은 뒤에 오는 체언 ‘책’을 꾸며 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6 (나)는 홑문장으로 이루어진 (가)를 겹문장으로 고쳐 쓴 글이다. 겹문장을 활용하면 내용을 논리적이고 집중력 있게 전달할 수 있으며, 사건들 간의 연결 관계와 글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일 필수 체크 전략 1

42~43쪽

1 ② 1-1 ④ 2 ① 2-1 (1) ㉠, ㉡ (2) ㉢, ㉣, ㉤ 3 ⑤  
3-1 ② 4 ② 4-1 ① 4-2 ㉠은 앞뒤 절이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은 앞뒤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 <보기>의 문장에서 주어는 ‘모자가’이고, 서술어는 ‘예쁘다’이다. ‘파란’은 체언 ‘모자’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정말’은 용언 ‘예쁘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1-1 ㉠ ‘무척’은 용언 ‘예쁘구나’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부속 성분이다.

2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찾아보면, ①에서는 ‘눈이 + 쌓인다’, ③에서는 ‘그가 + 다가왔다’, ④에서는 ‘아이가 + 날렸다’, ⑤에서는 ‘물은 + 된다’로 모두 홑문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는 ‘우리는 + 먹었다’, ‘(밥이) + 맛있었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다.

2-1 ㉠에서는 ‘사람이 + 걷는다’, ㉡에서는 ‘가을이 + 왔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각각 한 번만 나타나므로 ㉠, ㉡은 홑문장이다. ㉢에서는 ‘토끼는 + (어떠하다)’와 ‘앞발이 + 짧다’, ㉣에서는 ‘승현이가 + 간다’와 ‘(승현이가) + 한다’, ㉤에서는 ‘지연이는 + 도왔다’와 ‘아무도 + 모른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각각 두 번 나타나므로 ㉢, ㉣, ㉤은 겹문장이다.

3 (가)는 두 홑문장이 나란히 이어져서 이루어진 문장이고, (나)는 한 홑문장이 다른 홑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는 문장으로, (가)와 (나)는 문장의 확대 방식에 차이가 있다.

3-1 ㉠은 ‘까마귀가 날다.’와 ‘배 떨어진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은 ‘인생은 짧다’와 ‘예술은 길다.’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은 ‘사공이 많다.’와 ‘배가 산으로 간다.’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은 관형절 ‘몸에 좋은’을 안은 문장, ㉤은 관형절 ‘닭 쫓던’을 안은 문장, ㉥은 관형절 ‘성공으로 가는’을 안은 문장이다.

4 <보기>는 ‘마스크를 쓰다.’와 ‘얼굴에 땀이 줄줄 흐른다.’라는 두 홑문장이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이와 같은 짜임과 의미 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시간이 다 되다.’와 ‘나는 일어났다.’가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②이다.

**오답 풀이** ①은 나열, ④는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③은 조건, ⑤는 목적·의도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4-1** ①은 홑문장 '상처가 나다.'와 '나는 약을 받았다.'가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나머지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4-2** ㉠, ㉡은 '태주는 피자를 먹었다.'와 '호영이는 피자를 먹지 않았다.'라는 두 홑문장이 각각 나열,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2일 필수 체크 전략 2**

44~47쪽

01 ⑤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④ 07 ④  
 08 ③, ④ 09 (1) 준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았다. (2)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10 ⑤ 11 ⑤ 12 두 홑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지, 한 홑문장이 다른 홑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는지에 따라 (가)와 (나)를 구분할 수 있다. (문장의 확대 방식에 따라 (가)와 (나)를 구분할 수 있다.) 13 ④  
 14 ① 15 ④ 16 ④ 17 ⑤ 18 <보기>는 '사공이 많다.'와 '배가 산으로 간다.'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01** ㉠에는 목적어, ㉡에는 주어, ㉢에는 서술어가 들어가야 한다. 목적어, 주어, 서술어는 모두 문장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면 안 된다.

**02** 부속 성분은 주성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관형어와 부사어가 이에 해당한다. <보기>에는 관형어 '냘은'과 부사어 '수수하게'가 사용되었다. '운동화가'는 주어, '보였다'는 서술어이다.

**03** <보기>의 문장은 '관형어 + 주어 + 부사어 +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고, ① 역시 '관형어 + 주어 + 부사어 +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어 문장 성분의 종류와 배열 순서가 일치한다.

**오답 풀이** ② '주어 + 관형어 + 목적어 + 서술어'  
 ③ '관형어 +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④ '관형어 + 주어 + 보어 + 서술어'  
 ⑤ '독립어 + 부사어 + 관형어 + 서술어'

**04** ①의 '주아는', ②의 '내가', ③의 '너의 새 옷이', ④의 '빨간 딸기가', ⑤의 '맛있는 치킨이'가 주어부이고, 나머지 부분은 서술부이다.

**오답 풀이** ① 주아는 + 늘 바쁘다  
 ③ 너의 새 옷이 + 무척 예쁘구나  
 ④ 빨간 딸기가 +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⑤ 맛있는 치킨이 + 바닥에 툭 떨어졌다

**05** ㉠에서는 현수가 '무엇을' 보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아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온전한 문장이 된다.

**오답 풀이** ① ㉠은 주어('현수가') + 서술어('보았다')로 이루어져 있다.  
 ② ㉡은 주어('히늘이') + 부사어('매우') + 서술어('맑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무엇이 + 어떠하다'의 문장 구조로 서술어가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④ '의사가'는 보어로 주성분이므로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다.

**06** ㉠, ㉡,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오답 풀이**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은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모두 겹문장이다.

**07** <보기>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은 '겹문장'이다. ④는 주어('친구는')와 서술어('먹었다')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②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08** ③은 '과연 그는 예술가로구나.'라는 홑문장이 '예술가가 훌륭하다.'라는 홑문장을 관형절로 안고 있는 겹문장이

다. ④는 ‘수지는 (무엇을) 바랐다.’라는 홀문장이 ‘은주가 팝송을 부르다.’라는 홀문장을 명사절로 안고 있는 겹문장이다.

09 ‘조건 2’에 따라 [문장 1]과 [문장 2]를 결합하여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0 <보기>는 홀문장의 확대 방식에 따라 겹문장을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은 ‘키가 매우 크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②는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③은 ‘그가 범인이 아님’이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④는 ‘인간은 존엄하다고’라는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⑤는 이어진문장으로 나머지와 문장의 종류가 다르다.

11 <보기>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⑤에서 ‘연주가 잠이 많음’이라는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해내기’라는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동생이 태어난’이라는 관형절이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선물을 받은’이라는 관형절이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④ ‘간식을 먹기’라는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을, ‘늦은’이라는 관형절이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12 (가)는 이어진문장이고, (나)는 안은문장이다.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은 문장의 확대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3 <보기>는 두 홀문장을 결합하여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과정으로, ④는 앞뒤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⑤ ‘연주가 재주가 많음’이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14 ①은 두 홀문장 ‘길이 너무 좁다.’와 ‘차가 못 지나간다.’가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며, 부사어 ‘너무’와 ‘못’이 사용되었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한다. ③도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만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③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⑤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5 ①, ③, 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②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④는 ‘자식이 건강하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16 ㉠은 조건, ㉡은 의도, ㉢은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은 나열, ㉡은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7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어색해진다. ⑤는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8 <보기>는 홀문장 ‘사공이 많다.’와 ‘배가 산으로 간다.’가 연결 어미 ‘-(으)면’을 통해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져 있다.



3일 필수 체크 전략 1

48~49쪽

1 ③ 1-1 ② 2 ④ 2-1 ⑤ 3 ④ 3-1 ② 3-2 소희는 시골에서 온 현수를 어제 만났다.(소희는 시골에서 어제 온 현수를 만났다.) 4 ③ 4-1 ①, ③

1 ③에서 '머리카락이 휘날리게'는 용언 '달렸다'를 꾸며 주는 안긴문장으로, 문장 안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다.

1-1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의 역할 외에 부사어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해야 한다. ②에서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홀문장 안에 '나는 너를 사랑하다.'라는 홀문장이 원인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안긴문장 '내가 건강하다.'와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안긴문장 '비가 내리다.'와 보조사 '까지'가 결합하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안긴문장 '그가 옳다.'와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안긴문장 '그 사람이 범인이다.'와 명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2 부사어 '결코'는 부정적인 의미의 서술어와 호응한다. 따라서 ④는 '사람은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 등으로 바꾸어야 문장의 호응이 자연스럽다.

2-1 ④와 ⑥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도 부정확한 문장으로, 의미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불러올 수 있다.

3 ④는 '나'가 강아지를 보았고, 그 강아지의 털이 아름답다는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되는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사람들이 전원 오지 않았다는 의미와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일부만 왔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내가 형과 함께 아우를 찾아다녔다는 의미와 나 혼자 형과 아우를 찾아다녔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③ '게으른'이 꾸며 주는 대상이 '토끼'인지 '거북이'인지 둘 다인지 명확하지 않다.

⑤ '키가 큰'이 꾸며 주는 대상이 '할머니'인지 '손자'인지

명확하지 않다.

3-1 ②는 관형어 '착한'이 꾸며 주는 대상이 '동생'인지 '친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동생이 착하다는 의미와 동생의 친구가 착하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2 제시된 문장은 부사어 '어제'가 '만났다'를 꾸며 주는지 '온'을 꾸며 주는지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순을 조정하여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4 겹문장은 두 단위 이상의 생각이 한 문장으로 집약되어 이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홀문장으로 구성된 (가)가 (나)보다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1 겹문장으로 표현하면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이고 집중력 있게 전달할 수 있고,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진다.

3일 필수 체크 전략 2

50~53쪽

01 ① 02 ⑤ 03 ③ 04 (1) 도현이가 "내가 학교로 갈게." 라고 말했다. (2) 도현이가 자기가 학교로 간다(가겠다)고 말했다. 05 ④ 06 (1) 주어 '비(가)'와 서술어 '불었다'가 호응하지 않는다. (2)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07 ③ 08 ⑤ 09 ① 10 ③ 11 ⑤ 12 ② 13 (1)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엄마를 더 좋아한다. (2) 형은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보다 엄마를 더 좋아한다. 14 ⑤ 15 ② 16 ⑤

01 <보기>는 홀문장 '오래전에 우리는 (무엇)을 알았다.' 안에 홀문장 '지혜가 천재이다.'가 절의 형태로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안은문장이다. 두 홀문장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02 <보기>의 문장에서 안긴문장은 ‘밤이 깊도록’으로, 문장 안에서 서술어 ‘그렸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⑤에서도 안긴문장 ‘머리카락이 휘날리게’가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에서는 ‘그가 떠났음’, ②에서는 ‘목소리가 고우시다’, ③에서는 ‘언니가 만든’, ④에서는 ‘엄마가 빨리 오기’가 안긴문장이며, 각각 문장 안에서 목적어, 서술어, 관형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03 ①의 ‘내가 돕기’, ②의 ‘친구가 건강해지기’, ④의 ‘엄마가 돌아오시기’, ⑤의 ‘내가 이미 상을 받았음’은 명사절로, 모두 문장 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의 안긴문장인 ‘내가 왔다는’은 체언 ‘사실’을 꾸며 주는 관형절이다.

04 직접 인용에서는 인용 부호와 함께 직접 인용격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간접 인용에서는 인용 부호 없이 간접 인용격 조사 ‘고’를 사용한다. 또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경우, 대명사를 적절하게 바꿔 주어야 한다.

05 ㉞은 명사절로, 문장 안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06 둘 이상의 주어나 목적어가 접속 조사 ‘와/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주어나 목적어가 서술어와 호응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기>에서 주어 ‘비(가)’는 서술어 ‘불었다’와 호응하지 않는다.

07 ③은 ‘나는 버스를 기다렸다.’라는 홑문장 안에 ‘눈이 빠진다.’라는 홑문장이 부사절의 형태로 안겨 있는 안은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이어진문장이다.

08 ‘손뼉(을)’은 ‘치다’와 호응하고 ‘환호성을’은 ‘지르다’와 호응하므로, ㉞의 ‘손뼉과 환호성을 지르며’는 ‘손뼉을 치고 환호성을 지르며’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09 ①에서는 서술어 ‘닭았다’에 대한 부사어 ‘무엇과’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의미가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는 문장이다.

10 ㉠은 ‘멋진’이 꾸며 주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적 표현이다. ‘멋진’이 ‘오빠’를 꾸며 주는지, ‘오빠의 친구’를 꾸며 주는지에 따라 문장이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만, ‘멋진’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동일하다.

11 <보기>의 앞 절에는 주어(‘이이의 호는’)와 서술어(‘울곡이며’)가 드러나 있지만, 뒤 절에는 서술어(‘유학자이다’)

만 드러나고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12 <보기>의 (가)는 홑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이고, (나)는 (가)를 겹문장으로 바꾼 글이다. (나)에서는 (가)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생략하여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내용을 집중력 있게 표현하고 있다.

13 <보기>의 문장은 비교 대상이 ‘나’와 ‘엄마’인 경우와 ‘나’와 ‘형’인 경우에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적 표현이다.

14 ①은 ‘다’의 수식 범위에 따라 친구들이 일부만 왔다는 의미와 전원이 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②는 조사 ‘의’의 의미에 따라 영희가 찍은 사진이라는 의미와 영희를 찍은 사진이라는 의미, 영희 소유의 사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③은 세영이가 승수와 함께 재회를 찾았다는 의미와 세영이 혼자 승수와 재회를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④는 주어와 목적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철수와 영희가 부부가 되었다는 의미와 철수와 영희가 각자 결혼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5 (가)는 5개의 홑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이고, (나)는 5개의 홑문장을 결합하여 겹문장 하나로 고쳐 쓴 글이다. (나)와 같이 고쳐 쓰으로써 사건의 전후 관계나 논리적인 관계가 좀 더 잘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 ②는 홑문장을 주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표현 효과이다.

16 제시된 글은 여러 개의 홑문장이 결합된 겹문장으로 구성된 글이다. 겹문장으로 표현하면 두 단위 이상의 생각이 한 문장으로 집약되어 이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쉽다.



01 ② 02 ⑤ 03 ④ 04 (나)는 주성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꾸며 주는 부속 성분이고, (다)는 문장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성분이다. 05 ⑤ 06 ⑤ 07 ① 08 ⑤ 09 ③ 10 ⑤ 11 (1) 사과가 정말 빨갛고 참 달콤하다.(사과가 참 달콤하고 정말 빨갛다.) (2) 정말 빨간 사과가 참 달콤하다.(참 달콤한 사과가 정말 빨갛다.) 12 ① 13 ③ 14 ④ 15 (1) 윤경이는 혼자서 혜성이와 영주를 불렀다. (2) 슬기가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많다. 16 (1) 서술어 '방지하려면'이 '질서를'과 호응하지 않아 어색한 문장이다. (2) 사고를 방지하고 질서를 지키려면(유지하려면) 우리 모두 복도에서 뛰지 말아야 합니다.

01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말은 동사,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말은 형용사,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은 '체언+조사'이다. ②의 서술어 '뛰어간다'는 동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이다.

02 ㉠에 사용된 독립어 '와'는 독립 성분이므로 ㉠과 ㉡이 주 성분과 부속 성분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는 주성분인 주어 '웃이'와 서술어 '예쁘다'가 사용되었다.

② ㉡은 '소리도 없다.'라는 홀문장이 '꽃이 활짝 피었다.'라는 홀문장 안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안은문장으로, 문장 전체의 주어는 '꽃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피었다'이다.

③ ㉠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고, ㉡은 부사절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④ ㉠의 '정말'과 ㉡의 '활짝'은 모두 용언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03 ㉢은 '되었다' 앞에서 문장의 의미를 보충하는 보어이다.

**오답 풀이** ① ㉠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이다.

② ㉡ 관형어 '새하얀'을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③ ㉢ 용언 '터뜨렸다'를 꾸며 주는 접속 부사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⑤ ㉣ 용언 '드셨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체언과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이다.

04 (나)의 '까만'은 체언 '모자'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정

말'은 용언 '멋있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다)의 '모자가'는 주어이고 '멋있다'는 서술어로, 주성분에 해당한다.

05 부사어는 주로 용언(동사, 형용사)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이며, 때로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꾸며 주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한다. 서술어 '되다/아니다' 앞에서 의미를 보충하는 것은 '보어'의 역할이다.

**오답 풀이** ①은 ㉠과 ㉢, ②는 ㉡, ③은 ㉠과 ㉣, ④는 ㉢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6 제시된 문장은 '설이 되다.', '어머니는 가족들의 옷을 준비하다.', '어머니는 음식을 장만하셨다.'라는 3개의 홀문장이 결합한 겹문장이다. ⑤의 문장도 '영재는 야구공이 좋다.', '삼촌이 야구공을 영재에게 주었다.', '영재는 깡충깡충 뛰었다.'라는 3개의 홀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소리를 들었다.'와 '비가 오다.'라는 2개의 홀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그는 사실을 몰랐다'와 '우리가 돌아왔다.'라는 2개의 홀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이번에도 (무엇)을 바란다.'와 '너의 일이 잘되다.'라는 2개의 홀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와 '다음에 또 보자.'라는 2개의 홀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07 제시된 문장은 기본 구조가 '무엇이 + 어찌하다'인 홀문장으로, '관형어 + 관형어 + 주어 + 부사어 +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 관형어로는 '우리'와 '모두의' 2개가, 부사어로는 '반드시' 1개가 사용되었다. 문장 전체의 주어는 '꿈'이고, 서술어는 '이루어진다'이다.

08 ㉠, ㉣, ㉤는 각각 원인, 양보, 의도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와 ㉢은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나 사태가 동시에 겹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며'와 '-면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자료실**

**연결 어미**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어미를 말한다.

① 대등적 연결 어미

• 나열: -고, -(으)며 등

• 대조: -지만, -(으)나 등

- 선택: -거나, -든지 등
- ② 종속적 연결 어미
  - 원인: -아서/어서, -(으)니 등
  - 조건: -(으)면, -거든 등
  - 목적·의도: -(으)러, -(으)려고 등

- 09 ㉠은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다.'라는 홑문장이 '그대는 사랑이다.'라는 홑문장 안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안은문장이다. 이때 안은문장의 주어는 '그대는'이고 안긴문장의 주어도 '그대는'이므로, 안은문장과 안긴문장의 주어 가 같다.
- 10 <보기>는 '나는 그녀가 만든 꽃다발을 받았다.'와 '나는 무척 기뻐다.'가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또한 문장의 앞 절은 '나는 꽃다발을 받았다.'라는 홑문장 속에 '그녀가 꽃다발을 만들었다.'라는 홑문장이 절의 형태로 들어가 관형어 역할을 하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여기서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안긴문장의 목적어가 모두 '꽃다발을'이기 때문에 안긴문장의 목적어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받아서'와 '기뻐다'로 두 개이다.
- 11 <보기>의 두 홑문장은 의미 관계가 대등하므로 나열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두 홑문장의 주어가 '사과가'로 동일하므로 한 문장을 관형절로 활용하여 안은문장을 만들 수 있다.
- 12 ㉠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찬바람과 눈이 내렸다'를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렸다'로 수정해야 한다. ㉡은 앞뒤 절이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로 이어지므로 '장마철이지만'을 '장마철이어서'로 수정해야 한다. ㉢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함께 산다'를 '함께 사는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 13 ③은 문장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성분이 갖추어져 있는 온전한 문장이다. 홑문장 '가는 말이 곱다.'와 '오는 말이 곱다.'가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며, 관형절 '가는'과 '오는'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안은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호랑이도 온다.'와 '(누가) 제 말 하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 ② 홑문장이다.
- ④ '(누가) 물에 빠지다.'와 '(누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⑤ 관형절 '겨 묻은'과 '똥 묻은'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안은문장이다.

- 14 제시된 글은 홑문장을 사용하여 긴박감과 속도감을 주고 있다.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하고, 사건들의 전후 관계와 인과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겹문장의 표현 효과이다.
- 15 (1) '혜성이와'가 주어에 속하는지 목적어에 속하는지에 따라 윤경이가 혜성이와 둘이서 영주를 불렀다는 의미와 윤경이가 혼자서 혜성이와 영주 두 사람을 불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2) '슬기가'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에 따라 슬기가 많은 친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의미와 많은 친구가 슬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16 '질서를 방지하다'라는 표현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질서를'에 호응하는 적절한 서술어를 추가해야 한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1

58~59쪽

01 [A]: 찬미가, 모자를, 썼다, 개미가, 먹이를, 나르네, 범수가, 유리창을, 닦았다 [B]: 새, 부지런히, 모든, 깨끗이 [C]: 어머  
02 ㉔ 03 (1) ㉑ (2) ㉒, ㉓ (3) ㉒, ㉓ 04 가현 05 (1) 겹  
문장, 안은문장,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2) 겹문장, 안은문장, 관  
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 01 [A]는 주성분이고, [B]는 부속 성분, [C]는 독립 성분이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해당하고,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해당한다.
- 02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자동사인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온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다. ㉔의 서술어 '파랗다'는 형용사이고, ㉒의 서술어 '달린다'는 자동사이므로 ㉔의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㉔의 주어는 '하늘이', ㉒의 주어는 '지후가', ㉒의 주어는 '우리는', ㉔의 주어는 '하은이는'이다.  
② ㉔의 서술어는 '파랗다', ㉒의 서술어는 '달린다', ㉒의 서술어는 '먹는다', ㉔의 서술어는 '되었다'이다.  
③ ㉔~㉔에 사용된 문장 성분은 모두 주성분이다.  
⑤ ㉒에는 목적어 '밥을'이 사용되었고, ㉔에는 보어 '회장이'가 사용되었다.
- 03 ㉑은 홑문장이고, ㉒은 명사절 '금메달을 따기'가 안겨 있는 안은문장, ㉓은 관형절 '삼촌이 여행을 떠난'이 안겨 있는 안은문장이다. ㉒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㉓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04 ㉑은 서술절 '정말 키가 작다'를 가진 안은문장이고, ㉒은 관형절 '내가 좋아하는'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㉒, ㉓은 이어진문장이고, ㉓은 홑문장이다. ㉓에서 '이어달리기'는 육상 경기의 이름인 명사이므로 명사절로 취급할 수 없다.
- 05 (1)과 (2)는 모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이자 안은문장이다. (1)에서는 '가슴이 설렐다'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1)은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2)에서는 '원피스가 빨갛다'가 절의 형태로 안겨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2)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2

60~61쪽

06 ㉔, ㉕ 07 ㉑과 ㉒은 모두 형용사이지만 ㉑은 관형어이고 ㉒은 서술어이다. 08 ㉒ 09 '예정이며,'를 '예정입니다.'로, '바라며,'를 '바랍니다.'로 수정하여 긴 호흡의 문장을 짧게 고친다.  
10 ㉔ 11 (1) 서술어 '되었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인 보어가 없기 때문이다. (2)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사람이) 되었다. 12 ㉔

- 06 ㉔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이고, ㉕는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와 '비가 오다.'가 결합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진수는 (어떠하다).'와 '마음씨가 착하다.'가 결합한 안은문장이다.  
③은 '낙엽이 훑날리다.'와 '가을이 왔다.'가 결합한 안은문장이다.  
④는 '아이가 바람개비를 들다.'와 '아이가 달린다.'가 결합한 안은문장이다.
- 07 ㉑과 ㉒의 품사는 형용사로 같지만, ㉑은 '사과'를 꾸며주는 관형어이고 ㉒은 '사과'의 성질을 풀이해 주는 서술어이다.
- 08 ㉒는 '말이 천 리 간다.'와 '말이 발(이) 없다.'가 결합한 안은문장이다. ㉔, ㉒는 홑문장이고, ㉓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 09 길이가 긴 겹문장은 단번에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고, 문장 성분 사이의 호흡이 어색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길이의 문장으로 고쳐 쓰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 10 ㉒에는 서술어 '주셨다'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㉒은 주어를 추가하여 '할머니께서 나에게 비싼 생일 선물을 주셨다.'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 11 서술어 '되다(되었다)'는 주어와 보어가 있어야 온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다.
- 12 제시된 상품 평은 차례대로 홑문장, 이어진문장, 홑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조건>을 지키려면 안은문장이 추가되어야 한다. ㉔는 '운동화는 하얗다.'라는 홑문장이 문장 안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③은 홑문장이고 ④, ⑤는 이어진문장이다.

### 3주 통일 시대의 국어

1일 개념 돌파 전략 1 64~67쪽

- 01 ㉠ 02 맞춤법, 동질성 03 <한글 맞춤법> 04 ㉠  
 05 사이시옷 06 남한, 북한 07 (1) 남 (2) 북 08 ㉠  
 09 ㉠ 10 이념 11 ㉠ 12 고유어, 이념

- 01 남북의 언어는 문장 구조나 단어 사용에 큰 차이가 없고, 소리대로 적는 표기와 어법에 맞게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
- 02 남한과 북한의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바탕으로 하며, 남북은 단일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남북의 언어는 동질성을 가진다.
- 03 남한의 맞춤법 규정은 <한글 맞춤법>이고, <조선말 규범집>은 북한의 맞춤법 규정이다.
- 04 북한에서는 다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지만, 남한에서는 다음 법칙을 인정하여 한자어 첫머리에 ‘ㄴ’, ‘ㄹ’이 올 경우 ‘ㅇ’이나 ‘ㄴ’으로 쓴다.
- 05 남한에서는 ‘나룻배’, 북한에서는 ‘나루배’라고 쓰는 것은 단어를 표기할 때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만,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 06 남한에서는 의존 명사를 띄어 쓰지만, 북한에서는 의존 명사를 붙여 쓴다.
- 07 (1) ‘아내, 빗갈, 일꾼, 오희이, 숨바꼭질’은 남한의 맞춤법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2) ‘안해, 빗갈, 일꾼, 오토기, 숨바꼭질’은 북한의 맞춤법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 08 남북에서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우유’와 ‘소젖’, ‘화장실’과 ‘위생실’처럼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만 형태가 다른 어휘가 있다.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남한 언어의 특징이며, 남북의 어휘 중에는 형태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것도 있다.
- 09 남한과 북한에서 ‘일없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서 오해가 발생한 대화 상황으로, 대화 참여자 모두 상대방이 모르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 10 남한과 북한에 서로 다른 정치 체제가 들어서고 서로의 이념과 가치가 달라져서, 원래 같은 의미로 사용했던 단어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생겨났다.
- 11 남북 언어의 차이가 더 심해지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고 오히려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12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한은 외래어나 외국어의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며 고유어를 살려 쓰도록 노력해야 하고, 북한은 언어를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다듬거나 이념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1일 개념 돌파 전략 2 68~6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 01 남북 언어는 문장 구조가 동일하고 사용하는 단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 02 남북 언어는 소리대로 적는 표기와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를 모두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다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⑤의 ‘장맛비’는 사이시옷 표기를 하여 남한의 맞춤법을 따른 표기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자료실**

**다음 법칙**

다음 법칙이란 어떤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이다.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ㄹ’이 오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단어 첫머리의 ‘ㄹ’을 ‘ㄴ’이나 ‘ㅇ’으로 바꾸어 쓴다.

- ㄹ → ㄴ 예 래일 → 내일, 로인 → 노인
- ㄹ → ㅇ 예 량심 → 양심, 레절 → 예절

단어 첫머리에서 ‘ㄴ’은 ‘ㄴ’이나 ‘ㄴ’이 포함된 이중 모음 ‘ㄴㅈ, ㄴㅊ, ㄴㅊ, ㄴㅊ’ 등과는 함께 쓰지 않는다. 이때 ‘ㄴ’은 ‘ㅇ’으로 바뀐다.

- ㄴ → ㅇ 예 뇨소 → 요소, 니불 → 이불

자료실

사이시옷

합성어에서 앞말의 끝소리인 올림소리와 뒷말의 첫소리인 안올림소리가 만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사이시옷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합성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 모음의 받침에 사이시옷을 적는다.

예 초 + 불 → 초불  
고기 + 배 → 고깃배

- 03 제시된 글은 북한의 동화로 남북 언어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한 언어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 04 제시된 글은 북한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중계한 자료이다. 남한에서는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골키퍼', '슈팅', '패스'라고 하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문지기', '차넣기', '연락' 등으로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 05 ③의 '역사'와 '력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맞춤법(두음 법칙)의 차이 때문에 표기가 다를 뿐 형태가 다른 단어는 아니다.
- 06 제시된 자료는 남한에서 '오징어'라고 부르는 생물을 북한에서는 '낙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한 상황을 보여 준다. 이러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 공동 사전을 만들어 남북이 다르게 사용하는 어휘들을 협의의 통해 통합하는 등 언어의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맞춤법의 차이



남한 책



북한 책

2일 필수 체크 전략 1

70~71쪽

1 ③ 1-1 ② 2 ③ 2-1 ⑤ 3 ⑤ 3-1 ④ 3-2 지호는 소풍을 가다가 돌풍이 불어 놀라 넘어졌다. 4 ④ 4-1 ④

- 1 북한의 언어 자료인 <보기>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남북 언어가 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질화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1-1 남한의 맞춤법에 따른다면 '씨름구경꾼'은 '씨름 구경꾼', '바지저고리우에'는 '바지저고리 위에'로 고쳐 써야 하므로, 남북의 맞춤법 규정이 일치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 <보기>는 남한과 북한에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의 형태가 다른 예이므로, 어휘 면에서 드러나는 남북 언어의 이질성을 알 수 있다.
- 2-1 북한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말다듬기 운동을 전개하여 '끝차(←견인차)', '밥상갈(←나이프)' 등과 같이 한자어나 외래어를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자료실

문화어(文化語)

북한에서 언어생활의 기준을 삼기 위해 규범화한 언어로, 평양말을 중심으로 제정한 것이다.

- 3 북한 말 '에스키모'에 대응하는 남한 말은 '아이스크림'이다.
- 3-1 북한 말 '원주필'에 대응하는 남한 말은 '볼펜'이다.
- 3-2 북한 말 '들놀이'와 '갑작바람'은 남한 말로 각각 '소풍'과 '돌풍'이다.
- 4 북한에서는 남한과 달리 발음과 표기에서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에서 '여성', '연애'로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녀성', '련애'로 발음하고 표기한다.
- 4-1 북한에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글자 단위가 아닌 단어 단위로 띄어쓰기를 한다. 다만 남한에서는 의존 명사를 붙여 쓰고 북한에서는 띄어 쓰는 등의 차이가 있다.

2일 필수 체크 전략 2

72~75쪽

01 ⑤ 02 ① 03 (1) 겨울양식 (2)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므로 '겨울 양식'으로 표기하고,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겨울량식'으로 표기한다. 04 ③ 05 ② 06 ② 07 ③ 08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과 제도가 어휘의 의미에 영향을 주었다.(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반영하여 의미가 달라진 어휘가 있다.) 09 ② 10 ⑤ 11 의미는 같지만 형태가 다른 단어(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 형태가 다른 단어) 12 ⑤

- 01 남한과 북한의 맞춤법은 모두 분단 이전에 만들어진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소리대로 적는 표기와 어법에 맞게 적는 표기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제시된 글에서 '씨름', '바지', '저고리' 등은 소리대로 표기한 예이고 '겉옷'이나 '입었다'는 어법에 맞게 표기한 예로, 남북이 동일하게 표기하는 단어들이다.
- 02 ㉠ '속성음식센터'를 남한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한다. ㉡ '튀기료리'는 두음 법칙 표기와 띄어쓰기가 남한과 다른 경우이다. ㉢ '남새쌀라드'는 어휘 사용과 외래어 표기가 남한과 다른 경우이다. ㉣ '고간'과 ㉤ '메돼지'는 사이시옷 사용이 남한과 다른 경우이다.
- 03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표기에 적용하지 않는데, 한자어 첫머리에 'ㄹ'이 오는 '량식'이 그 예이다.
- 04 (나)에서 남북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뿌리로 하고 있지만 분단 이후 서로 교류 없이 각자 맞춤법을 수정해 왔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05 '나이'의 높임말인 '연세(年歲)'의 경우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여 '연세'로 표기하고,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년세'로 표기한다
- 06 남한에서는 '뿔마루'로 표기하고 북한에서는 '퇴마루'로 표기하는 것은 사이시옷 사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므로 ㉠가 ㉡의 예로 적절하다. ㉢, ㉣, ㉤는 남한과 띄어쓰기가 다른 예이고, ㉥는 띄어쓰기와 두음 법칙 적용이 다른 예이다.
- 07 (나)에서는 남한에서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거나 쓰지 않는 북한의 지역 방언이 문화어로 인정된 경우가 많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에서 지역 방언이 표준어로 인정된 경우의 많고 적음을 비교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 08 북한에서 '동무'를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을 친하게 이르는 말'로 풀이한 것으로 보아,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과 제도가 어휘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09 '꺄차'의 '차(車)'와 '뱃상꺄'의 '상(床)'은 한자이므로 ㉡의 말들이 모두 고유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0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남북 언어는 말소리, 단어, 문법 구조가 대부분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남북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 11 ㉠ 앞에 제시된 '에스키모'와 '아이스크림', '소젖'과 '우유', '닭알'과 '달걀', '사탕가루'와 '설탕', '종이꺄'과 '종이 고뿌'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그 형태가 다르다.
- 12 '우리', '나라', '중요한바이다'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고 '력사', '옴바르케', '아는것이'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것으로,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두 가지 표기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일 필수 체크 전략 1

76~77쪽

1 메돼지, 표말 1-1 ② 2 ⑤ 2-1 ③ 3 ① 3-1 ⑤ 4 ④ 4-1 ③

- 1 <보기>의 '나룻배'와 '나루배'는 남북의 맞춤법이 사이시옷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메돼지'와 '표말'을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써서 각각 '뿔돼지', '뿔말'로 표기한다.
- 1-1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붙여 쓰는 경우를 넓게 잡아 규정하

고 있고,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쓰며 두음 법칙을 인정하므로 ㉠은 '마라톤 애호가들의', ㉡은 '깃발', ㉢은 '평양 시 안의', ㉣은 '노동'으로 표기한다. '마라손'은 '마라톤'의 북한 표기이다. ㉤은 '진행되었다'로 표기한다.

- 2 남과 북이 분단되었다 하더라도 언어의 뿌리는 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류했다면 서로의 언어 차이를 이해하고 줄여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랜 세월 남북이 단절된 것이 남북 언어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2-1 남한에서는 말의 자율적인 흐름을 규범에 반영하여 외래어를 많이 수용하고 있고, 북한은 인위적으로 말을 규범화하여 이념과 제도를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3 남북 언어가 이질화되는 것과 언어의 다양성 확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은 ㉡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다. 남북 언어의 차이가 심해지면 오해와 불신이 생기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남북한 화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 3-1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남북의 언어 차이와 한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4 남북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어느 한쪽의 언어를 중심으로 통일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자료실**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에서 편찬하는 우리말 사전이다. 2005년부터 편찬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분단 이후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하고 있는 최초의 사전이다. 올림픽 선정, 새 어휘 조사 작업, 단일 어문 규범 작업, 뜻풀이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4-1 형태와 의미에 차이가 있는 어휘는 남북이 협의를 통해 통일안을 마련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는 있지만, 차이가 있는 어휘를 무조건 모두 새 단어로 만들어 통일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3일 필수 체크 전략 2**

78~81쪽

01 ㉣ 02 남한은 말의 자율적인 흐름을 규범에 반영했고, 북한은 인위적으로 말을 규범화했기 때문이다. 03 ㉣ 04 ㉢ 05 ㉣, ㉡ 06 ㉣ 07 ㉤ 08 ㉣ 09 우리 모두가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 10 ㉡ 11 ㉣ 12 남북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려면 남북 간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 01 뉴스에서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테 문학 용어 사전》을 만들었다고 했으므로, 분단국가였을 때부터 사전을 통해 언어의 차이를 줄여 나가고 있었다는 은술이의 반응이 적절하다.
- 02 남한의 언어 정책은 자연스러운 말의 변화를 검토하고 정리하여 규범에 반영했고, 북한의 언어 정책은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한글 전용 정책을 펼치는 등 인위적으로 규범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 03 남북 언어의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는 좁히기 어려우며, 통일이 된다고 해도 남북 언어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 04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남한과 북한의 학자들이 모여 남북의 어휘를 통합하고 집대성하는 데 의의가 있는 작업으로,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 05 (다)에서 남북 단일팀과 같은 스포츠 분야의 민간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남북 단일 스포츠팀의 구성 비율 등의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민족 문화 공동체의 폭을 넓혀야 하는 이유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 06 제시된 뉴스에는 남북 단일팀 선수들이 언어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문제 상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 07 남북의 맞춤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뿌리로 하고 있었으나 분단 이후 교류 없이 각자 맞춤법을 수정해 왔기 때문에 남북 언어에 차이가 생겼다. 그러므로 남북의 맞춤법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뿌리를 두었다는 점은 남북 언어가 달라진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 08 남북의 언어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될 정

도로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 언어의 이질성이 더 커지면 서로 간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 09 남북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 10 글쓴이는 방송에서 들은 북한 말은 선동적인 언어로 거리가감이 느껴졌으나, 직접 만나 본 북한 승무원들의 일상 언어는 사근사근하고 다정하게 들린다고 했다. 또한 글쓴이는 북한의 언어에서 남한과의 지역 차이만 느끼고 있을 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 11 글쓴이는 북한 방송 장면에서 거칠고 센 억양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선동적으로 하는 아나운서의 말이 우리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의 말처럼 들리고, 거칠고 거북하다고 했다.
- 12 글쓴이는 북한 승무원들의 일상 언어를 직접 들은 뒤 북한 언어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나 합격 전략

82~85쪽

- 01 ⑤ 02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표기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표기한다. 03 ②  
 04 ① 05 ④ 06 (다): ㉠, ㉡ (라): ㉢, ㉣ 07 ㉤ 두음 법칙  
 ㉥ 사이시옷 08 ③ 09 ⑤ 10 ③ 11 ③ 12 남한 사람들은 간접적인 표현에 익숙한 반면 북한 사람들은 간접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
- 01 (다)에서 남한은 말의 자율적인 흐름을 규범에 반영했고 북한은 인위적으로 말을 규범화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⑤는 남한 언어의 특징에 해당한다.
  - 02 ㉠의 '량식'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표기로, 남한에서는 '양식'으로 표기한다.

- 03 북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아서 '고간'으로 표기하고, 남한에서는 사이시옷을 사용하여 '곳간'으로 표기한다. ②의 '씻나락'에 사이시옷이 사용되었다.
- 04 분단 초기에는 북한에서도 서울말을 표준어로 인정하다가 1966년 문화어를 제정하고 보급하면서 남북의 언어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남북이 교류 없이 서로 다른 언어 정책을 추진한 것도 남북의 언어 차이가 심해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의 (다)에서는 단어의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라)에서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만 형태가 다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의 어휘는 의미나 형태가 모두 같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북한에서는 말다듬기 운동을 통해 한자어나 외래어를 고유어 위주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④ 남한에서 '동무'를 주로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⑤ '게사니', '가마치', '망돌' 등은 지역 방언이었던 것이 문화어가 된 것이다.
- 05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언어 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에 언어의 이질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므로, 남북이 각자의 언어 정책에 따라 어휘를 다듬는 것은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 06 ㉠과 ㉡은 북한에서 남한과 다른 뜻으로 쓰는 단어이다. 북한에서는 '바쁘다'를 '힘에 부치거나 참기가 어렵다, 매우 딱하다.'라는 뜻으로, '일없다'는 '괜찮다.'라는 뜻으로 주로 쓴다. ㉢과 ㉣은 외래어를 다듬은 문화어이다.
- 07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자어의 첫소리인 'ㄱ'을 'ㅇ'으로 표기하고, 합성어에서 'ㄴ'이 덧나거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사용해 표기한다.
- 08 남북 언어는 문장 구조가 동일하고 사용하는 단어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동화를 읽고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 09 '게'는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인 '거' 뒤에 조사 '이'가 붙은 형태로, '것'은 의존 명사이다. 남한에서는 단어 단위로 띄어 쓰고 북한과 달리 의존 명사도 띄어 쓰므로 ⑤가 적절하다.
- 10 접미사 '-질'은 남한에서는 직업이나 직책에 비하하는 의

미를 더해 주지만, 북한에서는 직업 명사 뒤에 습관적으로 붙이는 접미사로 비하의 의미는 담겨 있지 않다.

- 11 (가)~(다)는 어휘 사용에서 남북 언어의 이질성이 두드러지는 사례들이다. 이러한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이 형태와 의미에서 차이 나는 어휘를 협의를 통해 통일하거나, 남북의 어휘를 정리하여 공동 사전을 편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2 남한에서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라는 표현은 친근함을 표시하는 인사말인데, 북한 이탈 주민인 은주는 이를 직접적인 식사 약속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1**

86~87쪽

01 (1) 시간적 여유가 없다. (2) 형편이 좋지 않다.(주머니 사정이 빠듯하다.) 02 ① 03 ④ 04 ②

- 01 남한 학생인 지민이는 하늘이가 바빠서 못 온다는 말을 '시간이 없어서 못 온다.'라는 의미로 말했는데, 북한 학생인 수현이는 '하늘이의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서'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쁘다'라는 말을 남한에서는 '일이 많거나 또는 서둘러서 해야 할 일로 인하여 딴 겨를이 없다.'라는 뜻으로, 북한에서는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뜻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02 남한과 다른 북한의 어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북한의 지역 방언을 문화어로 삼은 어휘, 둘째는 남한의 어휘와 형태는 같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어휘, 셋째는 분단 이후에 새로 만들어 쓰는 어휘이다. [D]에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과 제도를 반영하여 새로 만든 어휘인 '인민배우'가 들어가야 한다.
- 03 남한에서는 '이용'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리용'이라고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발음이나 표기에 적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04 ㉠에는 남북 언어의 발음과 표기, 어휘, 말하기 방식의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남북 간의 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 내용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①은 발음과 표기의 차이, ③, ④는 어휘의 차이, ⑤는 말하기 방식의 차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창의·융합·코딩 전략 2**

88~89쪽

05 ④ 06 ⑤ 07 (1) 가리키는 말이 다르다. (2) 순화하여(다듬어서) 사용한다. 08 ⑤

- 05 제시된 상황에서 북한 사람은 오해가 생긴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06 ㉠ '겨울양식'을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 표기하므로 '양식'을 '양식'이라고 적고, '겨울'과 '양식'이 각각 한 단어이므로 띄어 써서 '겨울 양식'이라고 표기한다.
- 07 '오징어'와 '어묵'은 남한과 북한에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의 형태가 다른 예이고, '손기척'과 '가락지뻥'은 북한에서 외래어를 순화하여 사용하는 단어의 예이다.
- 08 북한에서 1949년에 한글 전용 정책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남과 북이 모두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맞춤법 규범을 정리했기 때문에 남북 언어의 문장 구조나 사용하는 어휘, 표기법 등에서 동질성을 가진다.



권말 정리 마무리 전략

신유형·신경향·서술형 전략

92~97쪽

01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02 ④ 03 ② 04 르, ㅅ, ㅎ  
 05 ① 06 입을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해.  
 07 ③ 08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정체의 주체가 되는 말  
 09 ④ 10 ㉠은 홀문장이고, ㉡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  
 고,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11 ② 12 ③, ⑤  
 13 ④ 14 ② 15 ⑤ 16 ③ 17 ③ 18 ④ 19 ①  
 20 북한 말과 남한 말의 차이는 지역 방언이 주는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1 ① 22 ③ 23 ②

01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음운은 자음과 모음 등의 분절 음운과 소리의 길이  
 등의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분절 음운과 비분  
 절 음운 모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음운의 개념이 드러나도록 서술했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에 적절한 내용을 서술했 다.	

02 제시된 문장은 [푸른 하늘 은하수]로 발음한다. 입술소리  
 로는 ‘ㅍ’, 원순 모음으로는 ‘우’, 거센소리로는 ‘ㅍ’이 사용  
 되었고, 된소리와 센입천장소리는 사용되지 않았다.

03 (가)의 ㉠과 ㉡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잇몸소리로  
 ‘ㄷ, ㅌ, ㅌ, ㅌ, ㅌ, ㅌ, ㄷ’이 있다. (나)의 방법으로 소리  
 내는 자음은 마찰음으로 ‘ㅌ, ㅌ, ㅎ’이 있다. 그러므로  
 (가)의 ㉠과 ㉡ 사이에서 (나)의 방법으로 소리 내는 자음  
 은 ‘ㅌ’과 ‘ㅌ’이며, ② ‘강산’에 ‘ㅌ’이 사용되었다.

04 ‘달’에 사용된 음운은 ‘ㄷ, ㅌ, ㄷ’이며, 이 중 잇몸소리가  
 면서 유음인 것은 ‘ㄷ’이다. ‘ㄷ’을 센입천장소리이자 파찰  
 음, 거센소리인 ‘ㄷ’으로 바꾸면 ‘달’이 된다.

05 <보기>에서 ㉠과 ㉡의 뜻을 구별해 주는 음운은 ‘소리의  
 길이’이다. 제시된 ‘밤’, ‘말’, ‘공’, ‘병’, ‘굴’ 모두 소리의 길  
 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말이다. 그러나 단어의 첫음  
 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긴  
 소리를 지닌 말이 합성어를 이루어 첫째 음절이 아닌 곳

에 사용될 때에는 짧은소리로 발음한다. ㉠에서 ‘해가 저  
 서 어두워진 때부터 다음 날 해가 떠서 밝아지기 전까지  
 의 동안’을 의미하는 ‘밤’은 짧게 발음하고 ‘밤나무의 열  
 매’를 의미하는 ‘밤’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합성어  
 ‘알밤’에서는 ‘밤[밤:]’이 첫째 음절이 아닌 곳에 사용되었  
 으므로 [알밤]으로 짧게 발음한다.

06 ‘배’의 ‘ㅐ’는 중모음이고 ‘배’의 ‘ㅑ’는 저모음이므로, ‘ㅐ’  
 를 발음할 때보다 ‘ㅑ’를 발음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려서  
 혀의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배’와 ‘배’의 뜻을 구별해 주는 모음과 관련하여 서술했 다.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와 입의 크기의 관계가 드 러나도록 서술했다.	

07 우리말 음운 체계에서는 자음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  
 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 제시된 대화 상황에서  
 외국인인 이러한 우리말 음운의 삼중 체계를 구분하지 못  
 하여 ‘달’, ‘딸’, ‘탈’을 모두 [탈]로 발음하고 있다.

08 서술어가 동사일 때 주어는 행동의 주체이고,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주어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이고, 서술어가  
 명사와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형태일 때 주어는 정  
 체의 주체이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기>의 탐구 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했 다.	
제시된 글자수에 맞춰서 서술했다.	

09 ④에서는 ‘유난히’를 생략해도 온전한 문장을 이룬다. 나  
 머지 밑줄 친 부사어들은 각 문장의 필수 부사어로, 생략  
 하면 형식상 문장이 온전하지 않고 의미가 어색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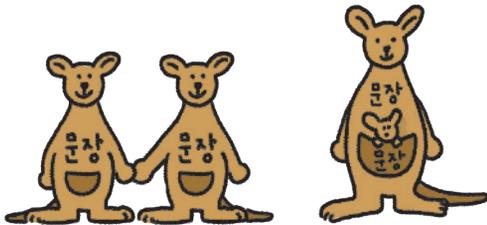
10 ㉠의 ‘빨간색’은 ‘모자’를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의 ‘빨  
 간’은 ‘모자’를 꾸며 주는 관형절이다. ㉢의 ‘-지만’은 앞  
 뒤 절을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 주는 연결 어  
 미이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장의 짜임을 기준으로 ㉠~㉢에 해당하는 문장의 종 류를 바르게 제시했다.	

〈조건〉에 제시된 형식에 맞추어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했다.

- 11 제시된 시에서 주어로는 ‘눈이’ 등이 사용되었고, 목적어로는 ‘눈을’ 등이 사용되었다. 관형어로는 ‘이’ 등이 사용되었고, 독립어로는 ‘누나’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보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12 ③은 주어(‘엄마가’)와 서술어(‘불렀다’)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홑문장이고, ⑤는 두 홑문장 ‘날씨가 따뜻하다.’와 ‘우리는 소풍을 갔다.’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봄이 왔다.’가 ‘봄에 새싹이 돋는다.’를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② ‘아이가 달린다.’가 ‘아이가 솜사탕을 들었다.’를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④ ‘길가에 꽃이 피어났다.’가 ‘꽃이 향기롭다.’를 안고 있는 안은문장이다.
- 13 <보기>는 ‘안중근은 독립투사이다.’, ‘안중근은 말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다.’, ‘입안에 가시가 돋힌다’, ‘입이 닳다.’의 총 5개 홑문장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장이다.
- 14 겹문장은 둘 이상의 홑문장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②는 ‘그는 천천히 걸었다.’라는 홑문장 안에 ‘그는 운동화를 신었다.’라는 홑문장이 관형절의 형태로 안겨 있는 안은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봄이 오다.’와 ‘꽃이 피다.’가 조건의 의미 관계로 결합한 이어진문장이다.  
 ③ ‘등산객이 배낭을 메다.’와 ‘(등산객이) 산에 오른다.’가 나열의 의미 관계로 결합한 이어진문장이다.  
 ④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다.’와 ‘(두 사람이) 화해했다.’가 나열의 의미 관계로 결합한 이어진문장이다.  
 ⑤ ‘나는 개를 좋아한다.’와 ‘진주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가 대조의 의미 관계로 결합한 이어진문장이다.

- 15 ㉠과 ㉡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은 ‘금메달을 따기’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안은문장이고, ㉡은 ‘삼촌이 여행을 떠난’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안은문장이다. ㉢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은 대조의 의미 관계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16 ③은 ‘나는 버스를 기다렸다.’라는 홑문장 안에 ‘눈이 빠지다.’라는 홑문장이 부사절의 형태로 안겨 있는 안은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이어진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① ‘인생은 짧다.’와 ‘예술은 길다.’가 나열의 의미 관계로 결합한 이어진문장이다.  
 ② ‘국민이 없다.’와 ‘나라도 없다.’가 조건의 의미 관계로 결합한 이어진문장이다.  
 ④ ‘나는 친구와 싸웠다.’와 ‘나는 선생님께 혼났다.’가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로 결합한 이어진문장이다.  
 ⑤ ‘토끼는 낮잠을 잤다.’와 ‘거북이는 부지런히 걸었다.’가 대조의 의미 관계로 결합한 이어진문장이다.
- 17 ㉢은 ‘친구’의 말을 간접 인용한 인용절이므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8 (가)는 여러 개의 홑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이고, (나)는 하나의 겹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이다. 겹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은 사건 간의 연결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각 사건이 긴밀하게 연결된 느낌을 주고 내용을 집중력 있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 19 분단 이후 남북이 서로 다른 언어 정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남북 언어에 이질성이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의 언어 차이를 인정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0 글쓴이는 북쪽 사람들의 일상 언어가 거칠지도 거북하지도 않다고 하면서, 남북의 지역적 차이만 있을 뿐, 일상에서 사용하는 북한 말은 남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쓴이가 생각하는 남북 언어의 이질성의 요소로 지역적 차이를 제시했다.	
〈조건〉에 제시된 형식에 맞추어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했다.	

- 21 'ㄱ'을 남한에서는 '쌍기역', 북한에서는 '된기읍'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ㅍ'을 남한에서는 '쌍시옷', 북한에서는 '된시옷'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22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 명사를 이룰 때 그 사이에 덧생기는 소리인 사잇소리 현상을 나타내는 'ㅅ'을 사이시옷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도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거짓'의 'ㅅ'은 사잇소리 현상에 따른 사이시옷이 아니므로 ③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23 남북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려면 남북한 사람들이 방송 매체, 인쇄 매체 등에서 자유롭게 서로의 언어를 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적 이념이 담긴 뉴스를 남한에서 그대로 방송할 경우 남한 사람들이 이질감을 심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난도 해결 전략 1회

98~99쪽

01 ④ 02 ④ 03 ③ 04 '목적'에 파찰음 'ㅍ'은 사용되었지만 고모음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의 조건에 맞지 않는 단어이다. 05 (1) 평순 모음이자 전설 모음(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는 모음) (2) 혀의 높이를 낮게 하여(입을 더 크게 벌리고) 06 ① 07 ④

- 01 입술 모양, 혀의 높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단모음으로,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 02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해야 하지만, '봄눈'의 '눈'은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므로 짧게 발음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길게 발음한다.

자료실

긴 소리가 짧아지는 경우

- 긴소리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는데, 특이하게도 본래 길게 발음되던 것도 둘째 음절 이해에 오면 짧은 소리로 발음된다.
  - 예) 한국+말: → 한국말
-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도, 형태가 변화할 때 소리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
  - 예) 감다[감따:] → [가므니]

- 03 (가)에서 '학생 1'은 '개'와 '개'의 발음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때 '개'와 '개'는 모두 단모음이므로 '학생 1'이 단모음과 이중 모음을 정확히 발음해야 한다는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4 '목적'은 [목쩍]으로 발음되므로 파찰음 'ㅍ'은 사용되었지만 사용된 모음 '고', '기'가 모두 중모음이므로, ㉠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
조건에 맞지 않는 단어를 바르게 제시했다.	
어떤 조건에 맞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 05 '개', '개'는 모두 평순 모음과 전설 모음에 해당하지만, '개'는 저모음이고 '개'는 중모음이므로 '개'를 발음할 때는 '개'를 발음할 때보다 혀의 높이가 더 낮아지고 입이 더 벌어지게 된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
'해'와 '헤'를 발음할 때의 공통점을 올바르게 서술했다.	
'해'와 '헤'를 발음할 때의 차이점을 올바르게 서술했다.	

06 제시된 조건에 따르면 첫 번째 음절의 초성은 'ㅎ',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은 'ㄱ', 세 번째 음절의 초성은 'ㄹ'이다. 이를 모두 만족하는 단어는 [한:글밭]로 발음되는 ① '한글밭'이다.

오답 풀이 ② '하급생'은 [하:급쌩]으로 발음된다.

③ '핵가족'은 [핵까족]으로 발음된다.

④ '혁명가'는 [형명가]로 발음된다.

⑤ '호박죽'은 [호:박죽]으로 발음된다.

07 ㉠을 거센소리가 사용된 '출렁거리며'로 바꾸면 밝고 명량한 느낌보다는 크고 거친 느낌을 준다.

고난도 해결 전략 2회

100~101쪽

01 ②, ③ 02 ㉠은 홀문장이고, ㉡은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은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3 ④ 04 ④

05 ③ 06 (1) 내가 밥을 좋아하는 것보다 철수가 밥을 더 좋아한다 (2) 철수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밥을 더 좋아한다 (3) 비교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07 (1) 엄마가 목도리를 만들어서 철수가 목에 자주 목도리를 두른다. (2) 엄마가 만든 목도리를 철수가 목에 자주 두른다.(엄마가 철수가 목에 자주 두르는 목도리를 만들었다.) 08 ④

01 ㉠은 '앞발이 짧다'라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므로 겹문장이다. ㉢에는 3개의 부사어 '과연', '정말', '조용히'가 사용되었다.

02 ㉠의 '빨리'는 부사이고 ㉡의 '빠르게'는 형용사 '빠르다'가 부사어로 활용된 형태로, 모두 용언 '뛰어간다'를 수식하고 있다. ㉢은 '철수가 빠르다.'와 '철수가 뛰어간다.'가 결합한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고, ㉣은 '나는 철수를 보았다.'와 '철수가 빨리 뛰어가다.'가 결합한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
문장의 짜임을 기준으로 ㉠~㉣에 해당하는 문장의 종류를 바르게 제시했다.	

03 ④에서 '무척'은 모두 부사이면서 부사어이다.

오답 풀이 ① 첫 번째 '세상에'는 감탄사이자 독립어이고, 두 번째 '세상에'는 명사와 조사가 결합한 형태의 부사어이다.

② '멋진'과 '멋지다'는 모두 형용사이지만, '멋진'은 관형어이고 '멋지다'는 서술어이다.

③ '빨강계'와 '빨간'은 모두 형용사이지만, '빨강계'는 부사어이고 '빨간'은 관형어이다.

⑤ 첫째 '이런'은 감탄사이자 독립어이고, 둘째 '이런'은 관형사이자 관형어이다.

04 ㉠의 '소풍을'과 ㉡의 '김밥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성분인 목적어이므로, '소풍을'과 '김밥을'을 생략하면 ㉠과 ㉡는 온전한 문장을 이룰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a, c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b, d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②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경우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의 뜻이 달라지지 않는다.

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앞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문장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05 (가)는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 (나)는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 (다)는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각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안긴문장에 해당한다. (나)의 '서우가 친구와 먹은'은 '서우가 친구와 떡볶이를 먹었다.'라는 홀문장이 절의 형태로 문장 안에 들어가 체언인 '떡볶이'를 꾸며 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다)의 '날이 새도록'은 부사절로 용언 '계속했다'를 꾸며 준다.

06 <보기>는 '나'를 무엇과 비교하는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비교 대상이 '나'와 '철수'인 경우와, '나'와 '밥'인 경우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적 표현이다.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
비교 대상에 따른 문장의 의미를 (1)과 (2)에 적절하게 서술했다.	
<보기>의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했다.	

## 정답과 해설

- 07 ㉠이 원인이고 ㉡이 결과가 되려면 ㉠의 ‘만들었다’를 ‘만들어서’로 바꾸어 연결하면 된다. 또한 ㉠과 ㉡에 공통된 명사 ‘목도리’가 있으므로, ㉠을 목도리를 꾸며 주는 안은 문장으로 만들거나, ㉡을 목도리를 꾸며 주는 안은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

###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
㉠과 ㉡을 결합하여 원인과 결과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을 만들었다.	
㉠과 ㉡을 결합하여 안은문장을 만들었다.	

- 08 홑문장을 결합하여 겹문장을 만들 때 공통된 부분이나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 고난도 해결 전략 3회

102~103쪽

- 01 ㉡ 02 (1) 예시로 든 것은 나뭇잎이다. (2) 노인은 콧등이 가려운 걸 참았다. 03 (1) 라면 (2) 도넛 (3) 북한에서는 외래어(외국어)를 순화하여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04 ㉤ 05 ㉡ 06 • 남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양식’으로 표기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량식’으로 표기한다. • 남한에서는 단어 단위로 띄어 써서 ‘겨울 양식’으로 표기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남한보다 붙여 쓰는 경우가 많아 ‘겨울량식’으로 표기한다. 07 ㉢

- 01 남북 모두 단어 단위로 띄어 쓴다는 원칙은 같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남한에 비해 단어를 붙여 쓰는 경우를 넓게 잡아 규정하고 있어서, 남한에서는 의존 명사를 띄어 쓰지만 북한에서는 의존 명사를 붙여 쓴다.
- 02 ‘레시, 로인’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표기이고, ‘나무잎, 코등’은 사이시옷을 사용하지 않은 표기이다. ‘겉(걸)’은 의존 명사이므로 남한의 맞춤법에 따르면 띄어 써야 한다.

- 03 ‘라면’과 ‘도넛’은 외래어인데, 북한에서는 이를 고유어인 ‘꼬부랑’과 ‘가락지’를 활용해 순화하여 ‘꼬부랑국수’와 ‘가락지빵’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
북한 말 ‘꼬부랑국수’에 대응하는 남한 말을 올바르게 제시했다.	
북한 말 ‘가락지빵’에 대응하는 남한 말을 올바르게 제시했다.	
말을 다듬어 사용하는 북한 언어의 특징을 적절하게 서술했다.	

- 04 북한에서 온 승희는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접미사 ‘-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북한에서는 ‘-질’을 비하의 의미 없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북 언어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려면 서로의 언어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05 이 글에 사용된 단어 중에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외래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 06 남북의 맞춤법은 두음 법칙의 적용과 사이시옷 사용, 띄어쓰기의 허용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남한에서보다 단어를 붙여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겨울량식’이라고 쓰고 남한에서는 ‘겨울 양식’이라고 쓴다.

### 평가 기준

채점 요소	확인 ✓
남한의 맞춤법과 북한의 맞춤법을 비교하여 바르게 서술했다.	
남북의 맞춤법이 다른 이유가 드러나도록 서술했다.	

- 07 ㉢ ‘구미가 동했습니다’는 남북 모두 띄어 쓴다. 남한의 맞춤법에 따라 고쳐 쓴다면, ㉠은 ‘놓은 게’로, ㉡은 ‘얹았을 거야’로, ㉢은 ‘받자는 게’로, ㉣은 ‘두 개의’로 띄어 써야 한다.

